

“식품관련 보도 전문성 아쉽다”

이 글은 지난 11월 20일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이 주최한 「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세미나」에서 서울대 신광순 교수가 “언론매체의 식품관련 보도의 중요성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공정·객관 보도 ‘필수’

언론보도에 있어서 어떤 식품의 위해물질에 대한 유무해 논쟁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를 근거로 이뤄져야 하며 지나친 흑백논리로 전개해서는 안된다. 극히 일부의 견해나 주장 또는 전문학자의 단편적인 연구결과를 아무 해석장치 없이 그대로 뉴스화 한다는 것은 보도 경쟁적인 관점에서 납득할 수 있으나 대다수 독자이며 청취자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시키는 등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근래 일부 언론에서 수용하고 있는 전문기자제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 등으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설과 함께 교육계몽의 기능을 겸한 방향으로 보도의 틀이 짜여져야 할 것이다. 즉 전문분야의 문제는 전문가의 검증과 의견이 존중되는 풍토의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언론보도 내용의 정확성이 보장되어 결과적으로 과장된 뉴스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일반사회의 사건사고의 경우와 달라서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기사의 표현이나 기술방법이 논리적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전제는 그만큼 절대적이다. 한 예로 WHO의 국제 암연구기관(IARC)의 발암물질 분류 평가자료에 등재되어 있는 표현방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Group

2A(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와 Group 2B(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의 표현으로 Group 1(Carcinogenic to humans)과 구분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들 평가기준을 도외시키고 명확한 발암물질로 평가되지 않은 물질들에 대해서도 모두 발암물질로 동일시 취급하는데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언론보도는 공정성과 균형성 그리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본연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과열보도 경쟁 ‘그만’

국민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문제를 담보로 한 지나친 보도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최근 일본에서 O-157집단중독으로 만여명의 환자가 발생한적이 있다. 그럼에도 일본 언론이 문제를 신중하게 보도했던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한 판단에 의한 보도로서 뉴스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문제의 제기과 여론화를 주도해야 하는 언론이 문제를 확대 증폭시키는데 그치고 대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면 독자의 판단만 흐리게 한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언론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자료의 제공을 담당할 연구기관의 지정 등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현실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예산상 지원도 요구된다. **농약정보**